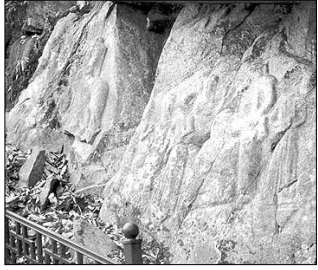


영국사 후불탱 등 보물로 10건은 지정 예고



‘영국사 영산회후불탱’과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이 각각 보물 제1397호와 제1401호로 지정되고, ‘수보살계법·범망경보살계본(受菩薩戒法·梵網經菩薩戒本) 합본’,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48,64,83’이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영국사 영산회후불탱’ 등 5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10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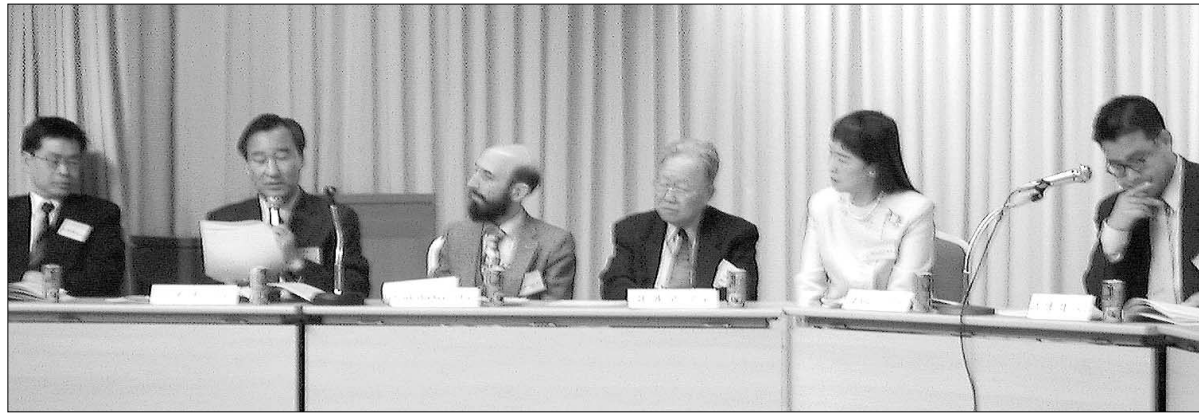
국제불교문화사상저널 3·4집

박노자 교수 등 논문 담

국내 유일 국제불교학술지 <국제불교문화사상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3, 4집 모두 자유 주제로 각각 9편, 8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17편의 논문 가운데는 카렐 베르너(Karel Werner·런던대), 댄 러셔스(Dan Lusthaus·미주리대), 임티야즈 유세프(Imtiyaz Yusuf·태국 어섬선대), 프랭크 테데스코(Frank M. Tedesco·플로리다대),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 외국 대학의 교수 논문 5편도 포함돼 있다. 오유진 기자

■ ‘죽음준비 교육 왜 실시해야 하나’ 국제 세미나

행복한 죽음 위해 할 일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발표자들. 사진 왼쪽부터 오진탁, 고영철, 칼 베커, 김현수, 도쿠마루 사타코(得丸定子·일본 조에쓰교대학), 고영섭 교수.

오진탁 교수 “죽을 각오 아닌 의미있는 삶 모색”

고영섭 교수 “죽음 맞이하는 순간 이해가 중요”

에로스(eros·성욕)와 타나토스(thanatos·죽음)는 인류의 오랜 금기였다. 성은 근래 수십 년 사이 담론화 과정을 거쳐 금기의 틀을 벗어났으나, 죽음은 아직도 두려운 존재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국내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94명으로 세계 1위에 해당해, 우리 사회의 죽음이 결코 건강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건강한 죽음을 준비하며 건강한 삶을 계획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이들은 죽음을 대비해 유서를 쓰고,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사학(生死學·Thanatology) 연구와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월 28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 죽음교육에 관한 국제 세미나 ‘죽음준비교육, 왜 실시해야 하는가?’도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날 세미

나에 참석한 오진탁(한림대 철학과) 교수와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도 생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세미나에서 ‘죽음,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발표한 오 교수는 “죽음 앞의 인간 자료가 따르면 2002년 국내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94명으로 세계 1위에 해당해, 우리 사회의 죽음이 결코 건강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 교수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생사관이나 종교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 난다고 말한다. 오 교수는 “티베트에서는 죽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죽음을 임박했다는 의사의 말에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 말하며 깊은 명상상태에서 죽음

에 이른 티베트 수행자의 예를 들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문제다. 오 교수는 “생사학이나 죽음 준비교육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준비를 통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변모시키도록 도모하는 것”이라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교와 생사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영섭 교수는 “죽음에 대해 역사, 철학적으로 불교만큼 관련이 깊은 종교나 학문은 없다”고 말한다. <티베트 사자의 서>, 윤회관 등을 통해 불교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고찰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 고 교수는 생사학을 불교가 현대적 학문과 접목했을 때 가장 연구 성과가 클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다.

고 교수는 “생사학은 철학적 고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낙태·자살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마주치는 순간을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 발족... 대표 정진홍 교수

이날 세미나의 골자라는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의 발족식으로 장식됐다. 이 포럼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없는 건강하고 밝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 정진홍(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를 대표로 선출했다.

‘죽음 준비교육, 왜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세미나도 밝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각국의 죽음준비교육 현황을 소개하

는 자리였다.

칼 베커(Karl Becker·일본 교토대학 종합인간학부), 고영철(러시아 국립사회대 한국학과) 교수가 각각 소개한 미국과 러시아는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미네소타, 애리조나 대학 등이 생사학에 관련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2001년 개원한 죽음요법학 연구원에서 죽음요법사를 길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삶과 죽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아직 생소한 만큼 죽음교육도 몇몇 대학에서만 이뤄질 뿐이다. 이날 한국의 죽음교육 현황을 발표한 김현수(전 주교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생물이 죽는다는 내용이 기록된 곳은 단 하나에 불과했다.

한편 포럼을 준비한 이들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종교적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밝은 죽음을 준비는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 이후에 대해 답해주는 종교와 합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4>



근대성

우리에게 점점 더 친숙해지는 생명과학은 서양 중세의 신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켰던 합리적 이성에 의거한 근대성(modernity)의 산물이다. 근대성은 ‘자립된 개인’이라는 개념과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지금의 물질문명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이러한 이성적 근대성은 사물을 인간 위주로 바라보고 기계론에 바탕을 둔 유물론적 세계관에 따라 생명 현상을 일종의 기계작용으로 파악한다. 그렇기에 생명 현상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생물학자들의 관점이나 생명복제의 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근대적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문화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 근대화라는 이름 속에서 개발론자들로 인하여 희생되고 파괴되어 왔던 자연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인간을 단순한 기계로서 유물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해방시킬 새로운 이념이다.

그러면 생산성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풍요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전 세계를 정복한 서양의 근대가 지닌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동안 근대화에 앞장섰던 서양사회에서 동양사회 보다 더욱 뜨겁게 불교, 참선, 명상 등이 유행하는 것과 관련 있다. 진정한 불자라면 너도 나

효율화·생산성이 생태파괴 불러

유물론 극복하고 ‘연기질서’ 알아야

하지만 근대 사회를 이루는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은 자연과 생태에 대한 책임으로 작용하여 환경 파괴를 불러왔고, 또 유물론적인 과학 문명은 오직 종교나 학문은 없다”고 말한다. <티베트 사자의 서>, 윤회관 등을 통해 불교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고찰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 고 교수는 생사학을 불교가 현대적 학문과 접목했을 때 가장 연구 성과가 클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다.

고 교수는 “생사학은 철학적 고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낙태·자살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마주치는 순간을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도 생산성과 효율을 외치면서 세계화 속에 뛰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휩쓸려 가기보다는 조용히 부처님 말씀을 통해 너와 나의 모습을 생산성과 효율로서 모든 것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지니게 됐다.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 표준화를 좋아하고 다양성 보다는 통일된 세계화(globalization)를 더 좋아한다. 이는 비록 근대화 과정으로 우리의 욕망은 채워졌지만 이제 우리는 근대성이 지닌 차별과 지배 구조를 지닌 문화 속에 살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근대를 이룬 한 축으로서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듯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기계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대표적인 유물론적 사회체제이고 철저하게 근대성을 포함

도 생산성과 효율을 외치면서 세계화 속에 뛰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휩쓸려 가기보다는 조용히 부처님 말씀을 통해 너와 나의 모습을 생산성과 효율로서 모든 것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지니게 됐다.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 표준화를 좋아하고 다양성 보다는 통일된 세계화(globalization)를 더 좋아한다. 이는 비록 근대화 과정으로 우리의 욕망은 채워졌지만 이제 우리는 근대성이 지닌 차별과 지배 구조를 지닌 문화 속에 살게 됨을 의미한다.



SHIM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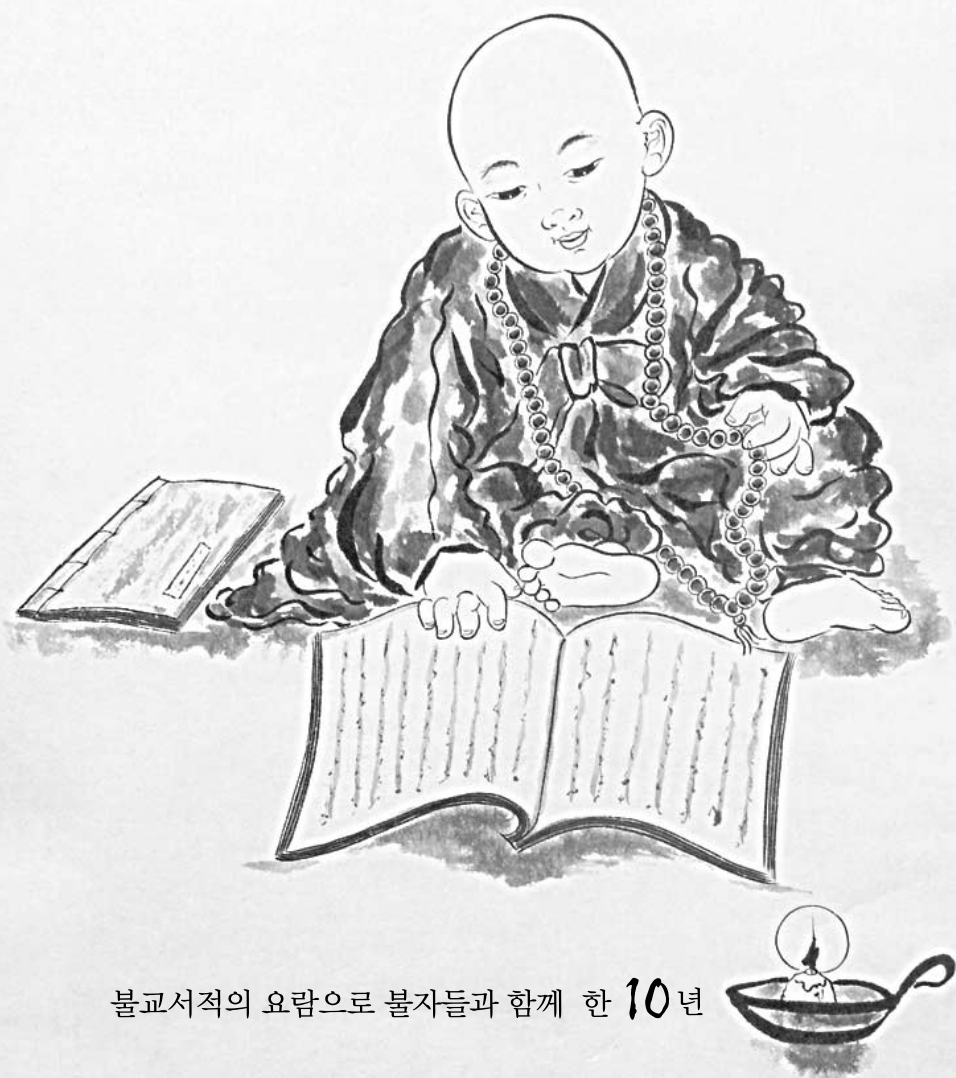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 3만여 불교서적의 검색 및 주문이 클릭 한번으로 딱딱!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02-737-0695 Fax: 02-737-0696 <법공양 정성껏 상드립니다.>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 한 10년